

● 연중 제 20주일 강론

예수님께서서는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과 정결법 문제로 격렬하게 토론을 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그대로 부정한 것은 없고 아무것도 하느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했겠지만,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몸소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부정한 이방인 땅에 발을 들여놓으셨고,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인종차별·성차별이라는 벽을 허물고 계십니다. 논쟁 이야기에서 기적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는 듯하나 그 초점은 치유에 있지 않고 이방인 여인의 믿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뒤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를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물러가십니다. 어떤 가나안 부인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명성은 이미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이방인 여인이 도움을 청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라는 표현으로 부당한 차별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유다 민족에게 복종하는 것뿐 아니라 그 관습과 역사에 동화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나안 사람에겐 과감한 결단과 귀화를 요구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했으면 염치나 체면도 차리지 않고 주변의 무관심과 박

대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은 자녀이고 이방인은 집에서 기르는 개로 묘사하십니다. 누가 들어도 경멸조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의 선교를 반대하던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여인과 그 지역 사람들이 들으면 발끈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발언이건만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방인 여인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자신을 강아지에 빗대었는데도 전혀 동요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사실로 인정하고 순종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수긍합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간절히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의 바람을 거리낌 없이 간구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신앙을 마음껏 훌륭히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그 신념이 예수님을 설득시켰습니다. ‘자녀들의 빵’이 모든 이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개종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신앙에 중심임을 인정하십니다. 정결법 운운하며 옛 사람의 전통에 매여 있는 하느님의 백성보다 훨씬 더 하느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시던 바로 그 시간에, 여인의 확고한 신앙이 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이런 여인들 덕분입니다. 그들이 복음과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으셨지만 이방인의 땅에서는 뜻밖에도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방인 여인은 멀리서 들은 풍문만으로도 그분을 알아보고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합니다.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가 아니라 철저한 믿음의 관계가 우선임을 깨닫습니다. 설령 예수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아도 참다운 믿음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걸림돌이고 무엇이 지름길인지, 이 여인의 믿음은 나에게 복음인지 도전인지 자신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여인한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는 인내와 지혜, 믿음과 의지의 사람입니다.

강지숙(한남성서연구소 수석 연구원)

생긱 웃는 얼굴

생긱 웃는 얼굴
생긱 미소를 짓는 그대를 보면
웃음이 태어난다.
공연히 우울할 때
아픔이나 괴로움을 제거할 때
웃으면 훨씬 좋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침울하거나 슬프게 보이고
불행과 하잘것없는 일에 말려 있는 것 같으면
당신의 주끼를 조금 끌어내리고
가슴을 부풀리고
웃음을 주라.
웃음,
당신의 웃음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바느질대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 었디어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니
우리러 뵈옵수록 전혀 알 길 없삽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않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니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 아멘.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9월 사목회의 안내

일 시: 8월 31일 미사후

장소 : 교육관

참석 요망 : 장/차장 및 구역장

◎ 정기 야외미사 안내

일시 : 9월 7일 오후 2시

장소 : Laurel Creek Conservation Area (The Critter Shelter) 625 Westmount Rd. Waterloo

행사 : 흥 백팀 운동회 , 보물 찾기 등
(올해도 교우 여러분의 보물 찾기 물품을 기증 받습니다. 문의는 윤명원 행사부장님께 하세요)

◎ 청소년 캠프 변경

- 일 시 : 8월 28일(목)

- 장 소 : 윈더랜드

- 대 상 : 청소년 & 복사단

- 문의: 노재현 청소년부장 (C:519-590-4493)

◎ 꾸르실료 254차 남성 주말

일 시: 08년 9월 18(오후6시)-21일(오후6시)

장 소: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참가비: \$290

신청및 문의 : 김현태(요셉)형제

마 감: 8월 31일

◎ 친교 식사가 교우 여러분의 협조 하에 원활히 진행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본당이 되었을 때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자는 취지하에 기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정해 진것이 아니라 교우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봉헌합시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정숙하고 깨끗이 사용합시다.

◎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교우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개설한 우리 공동체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www.cathtolic.or.kr/seobunews

가입 문의: 서기(한택종 519 883 8488)

◎ 주간 전례

▶8월 19일(화) 오후 8시, 연중 제 20주간 화요일

▶8월 21일(목) 낮 12시, 성 비오 10세 교황기념

▶8월 22일(금) 오후 8시, 동정 마리아 모후기념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순례

사순 2주, 3주 주님의 탄생과 수난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일시: 2009년 3월9일 - 3월 23일 14박15일

순례비용: \$3,400(추가 비용 없음)

신청마감: 2008년 11월 9일(선착순 30명)

신청: 선교부장

◎ 차동엽신부 특강

무지개 원리의 저자 차동엽 신부님의 긍정적인 삶과 무지개 원리에 관한 특별강좌가 있습니다.

일시: 8월 27일(수) 저녁 7:00 미사로 시작하여 7:30 -10:30까지 진행

장소: 토론토 한맘 성당

◎예수회 구정모 신부님 강의

일시: 9월 2일-3일(한맘), 4일-5일(성심)

주제: 전례와 생활

시간: 7시미사후 2시간

2008-33

2008. 8. 17.

연중 제 20주일

▶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후보에 공지(화,목,금,,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10월- 3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례

해 설 김근효 차주 해설 신계연

화 답 송 | 주 하느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모두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들의 온갖 병을 다 고치셨도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봉 헌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성 체 (163) 생명의 성체여
퇴 장 (480) 믿음으로

독서

8 월 17일 장철원 장혜라
8 월 24일 김근효 김순희
8 월 31일 박재영 박경미

봉헌

8 월 17일 김용하 김희선
8 월 24일 장철원 장혜라
8 월 31일 김근효 김순희

복사

8 월 17일 박규환 이현재
8 월 24일 구한힘 이수빈
8 월 31일 류지현 구한힘

친교

8 월 17일 영광팀 8 월 24일 장미팀
8 월 31일 백합팀 9월 7일 : 야외미사

2008 년 8월 10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739.00
교무금 :	\$ 1040.00
성전건립:	\$ 10.00
Total :	<u>\$ 1789.00</u>